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영광군, 청렴 1등군으로 우뚝

영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종합청렴도 8.00점으로 2016년 7.83점 대비 0.17점 상승하였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 청렴도는 7.97점으로 작년보다 0.21점 상승하였으며, 영광군에 제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는 8.11점을 받았다.

전국 군 단위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영광군은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상승하여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8위에 오르는 등 청렴도 추적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성적을

권익위 평가서 도내 22개 시군 중 1위 차지

종합청렴도 8.00점...작년 7.83 比 0.17 상승

거두었다.

영광군은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8위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5단계 오른 3위로 도약한 바 있다. 금년에는 외부청렴도에 눈에 띄게 향상되어 당당히 전남도 1위를 차지하며 민선 6기 군정방침(공개·공정·공명·공감행정)에 걸맞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제고 종합 대책 수립,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연극 공연

및 제재등 청렴콘서트, 청렴 골든벨 대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집단 및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대안제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꾸준히 향상시킨 노력이 좋은 평가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군수는 "군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였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패관행을 척결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실시하여 청렴 선도도시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영광군에 공사 관리 및 감독,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처리 경력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와 영광군에 제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숲가꾸기 부산물 이웃에 전달

숲을 가꾸며 발생한 나무 부산물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소중한 빨갇으로 쓰여진다.

장성군은 올 한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산물 중 목재로 이용하기 어려운 나무 200톤을 따로 모아 지난 4일부터 6일 까지 소외계층 100가구에 빨갇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고품질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내거나 가지치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장성군은 올해 1,900ha 입지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전달된 나무는 숲가꾸기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로 빨갇은 목겨노인, 수급자, 생계지원자 등 특히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소외 계층에 각자 전달됐다.

빨갇을 지원받은 장성을 김모 어르신은 "지난 겨울에도 난방 목재

를 받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며 "불해도 짐까지 찾아와 빨갇을 전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육성, 환경보전, 재해방지 등 여러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서 "인력 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을 소외계층의 난방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흙덩굴제거단 등 22명을 채용했으며,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림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8년에도 약 20여여원을 투입해 1,120ha

의 입지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푸드 아트 테라피로 청소년의 마음 열다

위기청소년 정서지원 워크숍

신안군은 1일 관내 학생 및 지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예방 교육의 일환인 위기(가능) 청소년 정서지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푸드 아트 테라피로, 식품을 매체로 하여 창의적인 놀이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열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의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심리적 치료효과 및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원스톱 상담지원과 위기청소년의 의료, 학업 지원, 자활 등 위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8701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박응식 기자

고흥군, 올해 '교통복지 완성의 해' 장식

천원버스·100원 택시·수요응답형 버스·장애인 콜택시 등



고흥군은 천원버스(단일요금제), 100원 택시, 수요 응답형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2017년을 교통복지 완성의 해로 장식했다.

천원버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구간요금제와 달리 관내·외 전체노선을 대상으로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천원버스 도입을 통해 ▲원거리

주민의 이동권 확대 및 교통비 절감 ▲고흥읍·도양읍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 ▲거스름돈이 필요 없어 버스의 신속한 운행으로 버스이용 승객이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보상금은 약 7억 원이며, 이를 모두 군비로 부담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원 택시는 올해 10개 면 26개

마을 주민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행되었으며, 2017년 11월 말 기준 90%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에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이 운행 대상이었으나, 마을회관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외진촌락까지 확대하여 2018년에는 5개 마을 60여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11개 읍·면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남부권·북부권 각각 2대의 차량이 읍·면별 장남 및 공중목욕장 개장일에 맞춰 운행하고 있다.

기존의 농어촌 버스와는 달리 각 마을회관 앞까지 운행하므로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이 멀어 불편함을 겪었던 마을 어르신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하하였고 추가요금도 164m당 80원에서 146m

당 40원으로 낮추었다.

금년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 실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고흥군 택시 120여 대를 대상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택시 이용률을 높였고, 배너택시사업으로 택시 양 옆면에 고흥군 주요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여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실현에 앞장섰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공모사업 선정 등 교통복지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다.

고흥군수 박병중은 "2017년 교통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의 성과적인 결실에 매우 기쁘고, 대부분 사업이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며, "사업의 보완점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2018년에도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수계관리기금 평가 '우수기관'

수질개선분야 1위 · 주민지원분야 2위 차지

보성군은 지난 6일 '2017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2016년도 5억원 이상 기금지원사업 중 3개 분야 5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타수질개선분야 '1위', 2년 연속 주민지원사업 분야 '2위'를 차지했다.

평가항목으로 계획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성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타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분야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

는 주민 편의를 위해 34억 원의 수계기금으로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27억 원의 수계기금을 받아 복내·마력 살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민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물어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제반업무 수행,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1억 원의 수계기금으로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원·하청관계 개혁

적정임금 (연대임금) 실현

작정 근로시간 실현

노사 책임경영 구현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